

배드민턴·하키 등 사전 경기... 전국체전 벌써 시작됐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드민턴과 하키 등 사전 경기가 열리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대거 참가해 스포츠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13일을 개막해 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 소재 7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선수 1만9279명, 임원 9198명 등 2만 8477명이 49개 종목(시범 2개 포함)에 참가 신청해 894개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재외한인체육단체

13~19일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 70개 경기장에서 열려 선수·임원 등 2만 8477명 49개 종목 894개 금메달 경쟁

1316명을 더하면 모두 2만 979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이후 바로 열리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선수가 대거 참가해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2년 연속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던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도청)의 활약이 주

목된다. 항저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며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7개씩을 따낸 박태환에 이어 단일 아시안 게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수확한 한국 선수가 됐다. 황선우는 아시아 및 한국신기록도 5개나 작성했다. 황선우는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리는 자유형 100m와 200m에 출전한다.

최윤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1982년 뉴델리 대회), 박태환(도하·광저우 대회)에 이어 한국 수영 선수로는 세 번째로 단일 아시안게임 3관왕의 위업을 이룬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강원도청)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물살을 가른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태극궁수들의 재대결도 기대된다. 항저우에서 양궁 리커브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을 휩쓴 스무살 대표

팀 막내 임시현(한국체대)이 전국체전 대학부 여자 개인전에서 2020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광주여대)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항저우 남자 높이뛰기에서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예사 바르심(카타르)과 접전 끝에 은빛 점프를 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체전 4연패 및 개인 통산 8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한 펜싱 대표팀의 금빛 찌르기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효자 종목으로 복귀한 배드민턴 대표팀의 금빛 스매시는 각각 해남 우송동백체육관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상을 이겨내고 항저우 2관왕에 오른 안세영(삼성생명)과 여자 복식 동메달을 거머쥔 김소영(인천국제공항)은 출전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종목에서 개막에 앞서 개막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 대회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핸드볼, 볼링, 배드민턴, 하키, 당구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6개 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의 경우 내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의 진행이 어려워 사전 경기가 치러지는 것이다.

핸드볼(무안종합스포츠파크)과 볼링(목포 대화볼링장), 배드민턴(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하키(목포하키장)가 이미 일부 경기를 마쳤으며 11일 당구경기가 목포해양대에서 열린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웅태 “광주 대표로 전국체전 3관왕 도전”

항저우 근대5종서 첫 2관왕 내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노려

“아시안게임은 한국을 대표했다면 전국체전은 광주를 대표해 나가는 대회다. 광주에서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는 만큼 지난해 대회처럼 모든 힘을 쏟아부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목표는 항상 전관왕이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2관왕과 개인전 2연패를 거머쥔 전웅태(광주시청)가 오는 13일 전남에서 막을 올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전웅태는 10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로서 경기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고, 노력의 결실이 2관왕이라는 큰 결과와 업적으로 남게 돼 기쁘다”라며 “파리 올림픽 출전권도 확보하게 돼 제 인생에 큰 발판이 되는 기적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웅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단체전에서도 다 함께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개인전의 다섯 배 이상은 더 치밀하게 신경 쓰며 준비했다”며 “팬싱이 끝나고 제 인생에 쉬운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대회 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당연히 상위권에 있을 것이고 경기를 쉽게 풀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라며 “팬싱이 끝나고 자책도 많이 했지만 빨리 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준결승에서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가대표팀, 광주시청 감독님과 많은 소통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에서 새 역사를 쓴 그는 이제 전국체전에서 또 다른 새역사 작성에 도전한다. 지난해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 계주까지 3관왕을 차지했던 전웅태는 올해 대회에서도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체전 전관왕을 목표로 한다는 전웅태는 “2주 전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기 때문에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다. 잘 관리하고 있고, 부상도 조심하겠다. 빨리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오는 12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남일부 5종 첫 종목인 승마를 진행한 뒤 전남으로 이

동해 14일 수영, 펜싱, 레이저런 종목을 치른다. 16일과 17일에는 남일부 계주에 출전한다.

전국체전을 소화한 뒤에는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2021년 8월 제32회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파리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전웅태는 “2년이 지났지만, 도쿄올림픽은 여전히 제 기억에 깊이 남은 순간이다”며 “도쿄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 만큼 더 강렬한 기억을 파리에서 남기고 싶다. 컨디션을 조절하고 부상을 조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서 유럽 선수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기록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 근대5종은 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고, 파리에서 제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며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을 뛰셨던 선배님이 ‘네가 이렇게 근대5종을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는 연락이 오셨는데 이 모든 영광은 선배님들의 정신이 저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2관왕과 개인전 2연패를 거머쥔 전웅태가 10일 기자회견 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의 천위페이를 상대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릎 부상 안세영, 한 달 이상 재활 필요

무릎 근처 힘줄 다쳐 전국체전 출전 불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단식에서 무릎 부상을 입고도 금메달을 따낸 배드민턴 여자 단식 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영은 지난 8일 중국에서 귀국 직후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받았고 이날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안세영은 7일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배드

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위페이(중국)와 경기 도중 1세트 막판에 무릎 부상을 당했다. 이후 움직임이 둔해졌고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무릎에 붓대를 칭칭 감고 계속 경기를 이어갔고 2-1,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한국 선수로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 만의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우승이었다. 단체전 우승까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안세영은 결승전 이후 부상 상황을 회상하며 “무릎 쪽이 많이 아파다. 그래도 무릎이 다행히 결을 정도는 됐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꿇듯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뛰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짧게는 2주, 길게는 5주 동안 재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안세영은 이번 주 개막하는 전국체전(13~19일)은 물론 이달 중순 덴마크 오픈, 월말 프랑스오픈 출전도 불발됐다.

하지만 재활 기간이 아주 긴 부상은 아닌 만큼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며 “내년 파리올림픽과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라, 배드민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노메달’ 배구, 위기감 속 V리그 개막

14일부터 6개월 대장정

한국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14일 약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2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이번 가을, 배구계 분위기는 예전보다 가라앉았다.

한국 남녀배구는 지난 8일 폐회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회 동반 4강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프로배구 여자부는 ‘도쿄 올림픽 4강’ 등의 국제 대회 성과로 겨울 인기 스포츠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인기의 근간이었던 국제대회 성적이 최근에 푹 떨어져, 위기감에 휩싸였다.

남자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어 리그 인기도 떨어진 상태다. V리그 20번째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걱정이 더 크다.

14일 남자부 대한항공-현대캐피탈, 여자부 한

국도로공사-흥국생명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V리그는 정규리그 1~6라운드 총 252경기를 벌인다.

이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팀을 가린다.

이번 시즌 V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쿼터’ 도입이다.

아시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걸 확인한 한국 배구는 아시아쿼터를 통해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6개국의 아시아 선수들에게 문을 열었다.

남자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 선수는 2017년 한국으로 건너와 순천제일고를 거쳐 각각 성균관대와 인하대를 졸업한 몽골 듀오 에디(삼성화재)와 바야르사이한(OK금융그룹)이다. 여자부에서는 이미 한국 대표팀을 맡아왔던 태국 국가대표 3명이 V리그에 입성한다. /연합뉴스